

한국타이어, 헝가리 이어 중국공장 증설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는 9억5400만달러(1조822억원)를 투자해 중국의 Chongqing에 타이어 공장을 건설한다고 11월23일 공시했다.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며 생산은 2012년 9월 시작할 예정이다.

충칭공장은 승용차용 1000만개와 트럭·버스용 150만개 등 타이어 총 생산능력이 1150만개에 달한다.

한국타이어는 Zhejiang의 Jiaxing과 Jiangsu의 Huaian에서도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면 중국의 타이어 생산능력이 총 4500만개로 확대된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헝가리 공장 증설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헝가리 공장은 2007년 6월부터 승용차용 고성능 타이어와 경트럭용 타이어를 연간 500만개씩 생산해왔으며 증설에 따라 총 1200만개로 확대됐다.

〈화학저널 2010/12/6〉